

택배차 사고·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

 추진부서 | 경기도 규제개혁과 ☎ 031-8008-4287

추진배경



- 영세 택배사업자는 운행하던 택배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
 - 운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 택배 물량의 변상 문제(식품 변질 등)가 발생하고, 차량 수리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집하 작업 문제로 거래처 단절도 우려
 - 용달 차량과 기사를 함께 빌리는 소위 '용차'는 가능하나, 이 경우 차량 임차료 외 기사 인건비까지 추가 지불해야 하므로, 영세한 택배 사업자에 부담이 됨.
 - 결국 영세 택배사업자는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점검이나 수리 기간이 긴 고장에 대한 근본적 수리 등을 기피 하게 될 유인이 커, 차량 안전 문제 발생
- 부천 소재 기업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「택배차 사고·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」 사업 모델을 구상하였으나, 관련 규제의 벽에 부딪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

[관련 규제]
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
 -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
-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
 - 시설·장비 및 영업점 요건이 엄격(예: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 영업점 등)

개선내용



개선 전

영세 택배사업자는 운행하던 택배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부재

- 운행지연으로 인한 택배물량 변상, 수리기간 장기화 경우 거래처 단절 우려
- 대체 차량을 빌릴 경우 차량뿐 아니라 기사도 함께 고용하게 되어 비용부담 추가 발생



개선 후

택배차 사고·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사업화

- 택배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, 예비차량(동급의 자가용 화물차량)을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 실증 특례 부여
-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,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 제한받던 사항 일시적 규제 완화

추진과정



해당 사업 모델은 경기도 컨설팅을 거쳐 제27차 신산업·신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되어, 서비스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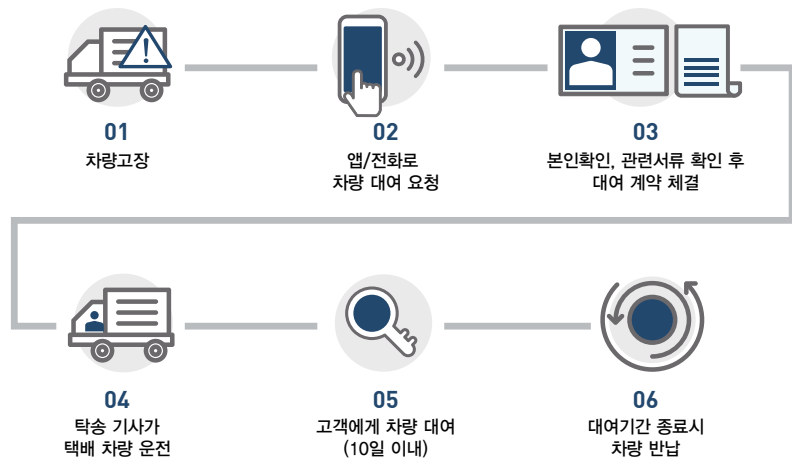
2021. 03. 11.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

2021. 04. 02.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

2023. 03. 11. ICT 규제실증특례 접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2023. 04. 19. 제27차 신산업·서비스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지정
- (실증범위) 수도권 일대, 대여차량 30대
(1차년도 10대, 2차년도 30대까지)

2023. 11. 29. 실증특례서비스 개시 통보(2023. 12. 01 ~ 2025. 11. 30.)



개선효과



- 차량 사고 또는 고장시 배달 지연으로 인한 영세 택배사업자의 피해를 방지
- 택배 사업자가 배송 지연 우려로 차량의 수리 및 점검을 기피 하는 문제 해결